

내 영혼의 고향, '만민'

'2017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37개국 목회자 및 성도들을 만나보니 저마다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에는 무언가 남다른 것이 있다. 과연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의 마음과 모습은 어떠할까?

"축복의 현장을 찾아 한국까지 왔어요"

남아메리카 콜롬비아만민교회에서 27명의 성도가 한국을 찾았다.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변화되고 치료받은 간증을 전한다.

목회자들이 '만민 하계수련회'를 말한다

러시아, 이스라엘, 벨로루시,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 만민의 사역을 직접 체험하고자 한국을 찾은 목회자들의 은혜로운 고백.

만민뉴스

제804호 2017년 9월 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폭발적인 은혜와 권능의 현장, 사모했어요!”

해외 목회자 및 성도들의 이유 있는 방문



활발한 세계 선교로 우리 교회는 해외 손님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1만 1천여 지·협력교회 성도들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영혼의 갈급함 속에 생명의 말씀을 찾던 중 GCN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책자, 신문 등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보고 들으며 삶의 변화를 체험한 이들이 한국의 만민중앙교회 방문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초에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을 위해 해외 37개국에서 총회장을 비롯 주의 종과 성도 1,100여 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그들에게는 오게 된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다.

방송, 인터넷을 통해 은혜받은 성도들

미국 나테즈다 코발 성도(48세, 여)는 9년 전 임팩트TV(러시아어 기독교방송)를 시청하던 중 우연히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대하고 큰 은혜를 받은 후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뇌출

혈로 쓰러진 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목사의 기도로 신속히 회복되는 권능을 체험하고 이번에 딸과 함께 한국에 왔다.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 교회에 와서 보니 내 집에 온 것처럼 평안했습니다. 당회장님을 직접 뵈고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니 너무 감동스럽습니다.”(사진 1)

프랑스 홀리갯TV 사장 제라르 우타야 쿠마르 목사의 아들 살로몽 우타야쿠마르 성도(24세, 남) 역시 우리 교회 방문을 사모해 왔다. 그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저희 방송을 통해 이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많은 사람을 대하여 권능의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사진 2 중앙).

동유럽 몰도바에서 TBN러시아 방송으로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시청하며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을 통해 몰도바에 교회가 생기고 현재 70여 명이 GCN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번에 10명의 성도가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다(사진 3).

비탈리 타바라누 성도(31세, 남)는 “영

적인 사랑이 가득한 만민중앙교회에서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다양한 질병이 치료되고 농아가 듣게 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들을 보며 신속히 성결을 이뤄 이 귀한 성결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임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책자를 통해 은혜받고 전도한 영혼들

홍콩에서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우리 교회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신앙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성도 10명이 수련회에 참석했다(사진 4). 시작점이 된 양신진 집사(53세, 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중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와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통해 영적인 깊이를 느끼며 은혜를 듬뿍 받게 되었어요. 주변에 전하다 보니 여러 명이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서는 27명이 함께 방문했다. 멕시코에서 한국에 오는 직항이 7월에 개항해 종전보다 빠르고 저렴한 항공료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다(3면 참조).

한편, 해외 목회자들은 영적 도전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4면 참조). 파키스탄 카라맛 일야스 목사(37세, 남)는 “이재록 목사의 말씀은 신선한 충만함을 안겨 주었고 많은 질병이 치료되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스리랑카 라트나야카 무디안셀라지 목사(39세, 남)는 “매우 조직적이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했고, 필리핀 르므엘 발데아빌라 목사(37세, 남)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였습니다.”라며 감격스러워했다.

폭발적인 은혜와 권능의 현장, 사모하던 우리 교회 방문을 통해 이들이 얻은 성령 충만함이 각자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로 맺히길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과연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의 마음과 모습은 어떠할까요?

1. 어떤 연단 속에서도 능히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참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땅에서 경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을 체험케 하심으로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 경작을 잘 받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영의 자녀가 될 때에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도,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심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에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연단이 온다 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마 16:27 ; 계 22:12).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28-30) 말씀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그릇을 택해 연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비롯해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의 종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길을 믿음과 사랑,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히 5:8-9). 여러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자기가 없어질 때야 온전한 중심의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있고 이로 인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되 중심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지요. 이러한 것이 철저히 연단을 통해 깨어져 버린 다음에야 자기라는 것이 없고 육신의 생각도 없어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한 대로 정녕

이 말씀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은 물론, 영으로 이끄시기 위한 어떤 연단이 허락될 때에도 마음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단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2. 마음 깊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첫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첫사랑으로 뜨거울 때는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십자가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지지요.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온전하고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더욱 승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의 마음으로 바뀌아가는 것이 정녕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기뻐함으로 지킬 때 그만큼 사랑이 더 승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함으로 더 큰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상대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오직 상대를 먼저 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상대를 위하는 마음뿐이기에 상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힘

들지 않고 수고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지요. 또한 자신의 취향도 기꺼이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추며 심지어는 식성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육적인 사랑을 하기에 이러한 행함이 계속되지 못하고 변질됩니다.

이와 달리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마음을 영으로 일구었기에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상대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처럼 억지로 힘들게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일군 마음에서 사랑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을 위해 서려면 자신의 것을 잠시 뒤로 미룰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됩니다.

반면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으므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고집하므로 많은 분야에 걸림이 되기도 하고 은연중에 자신을 들레는 모습도 보이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누리하고자 하는 사심이 동원되어 합당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연단 속에서도 능히 감사가 나오고 마음 깊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신속히 변화되어 훗날 하나님께 마음껏 칭찬과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은혜와 축복의 현장을 찾아 온 남아메리카 성도들

‘2017 만민 하계수련회’에는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만민교회에서도 27명이 참석해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성결의 복음과 폭발적인 권능의 근원지인 한국 만민중앙교회 방문을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니 보다 빠른 항공 노선이 생기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인 ‘엔라세 방송’을 통해 축복받은 가정들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는 꼭 세투 성도(61세, 남)는 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인 엔라세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다른 목회자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아야 한다고 설교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이 없었는데, 당회장님께서 성결되어야 축복받고 범사가 잘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장정연 목사(콜롬비아만민교회 담임)에게 기도를 받은 뒤 비개골암 수술 후유증을 치료받았다.

그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 큰 감동이 임했고, 딸 벤징 세투는 참된 사랑을 느끼며 목자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비판적이고 게임과 만화에 빠져 살다가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된 아들 다니엘 세투 형제는 시력이 호전되었으며, 누나 라우징 세투 성도는 20년 된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았다(사진 2).

마우리시오 니노 성도(83세, 남)는 온 가족과 함께 한국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항공료 때문에 가족 모두 올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가족들도 너무나 사모했기에 그는 어떻게 하면 같이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보다 1/4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왕복 티켓이 나온 것이다. 바로 티켓을 구매해 여덟 명의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너무 기쁘다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고백한다. 출발 전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련회에도 이어져 온 가족이 성령 안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 한다(사진 5).

이들이 콜롬비아만민교회 성도가 된 것은 엔라세 방송 덕분이다.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화면 하단에 나오는 주소를 보고 교회를 찾아갔다. 왕복 8시간이 걸리지만 그들은 교회에 가면 기쁘고 행복하니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Amazing!

| 35세, 인도 델리 | 마해쉬 성도



“저는 아버지의 이상 숭배로 인해 학대당하며 공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델리만민교회에 출석한 후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두통이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후두암 말기도 치료받겠다는 확신이 들어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가서 기도받았는데 후두암이 치료되어 건강해지셨지요.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꿈에서만 뵈던 목자를 가까이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 42세, 호주 시드니 | 리나 린시 성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시드니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이 임하니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가정도 화평해졌습니다.

하계수련회를 통해 내 안에 재창조의 권능이 역사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 24세, 태국 치앙라이 | 와라신 성도



“저는 예전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치앙라이만민교회에 전도된 후 죄를 버려야 함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며 변화되기 시작하니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수련회 시 날씨와 기온이 조절되고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는데, 어느새 제게 있던 아토피성 피부염도 치료받았습니다.”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시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은 축복

콜롬비아만민교회 성도들은 8월 7일 교육 후 진행된 은사집회를 통해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크리스티안 에르난데스 성도(18세, 사진 1)는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치료받았다. 그는 “평소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높아서 외견상으로도 좋지 않았고 가끔씩 통증도 느꼈는데, 당회장

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자세가 바르게 교정되었고 지금은 아무 통증이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라고 간증하였다.

시력이 좋아진 브라얌 핀뜨레라스 성도(21세, 사진 3)는 왼쪽 눈의 시력이 약해서 흐리게 보이고 작은 글씨는 잘 읽을 수 없었는데 기도받은 후 작은 글씨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8월 10일, 성도들은 무안단물터에서도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다. 라우라 그라나다 성도(21세, 사진 4)는 양팔에 있던 피부 발진이 무안단물에 침수한 후 사라져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 파릴 에르난데스 성도(20세, 사진 6)는 오른쪽 눈에 흐릿한 두 점이 보여 불편했는데, 침수한 후 치료받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역의 근간임을 깨우쳤습니다”

러시아 /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올해 '만민 하계수련회'에서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귀신을 쫓기 위해 영혼들에게 기도해 줄 때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이에 제 사역을 돌아보며 온전치 못한 마음을 회개하였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의 넓고 큰 사랑 안에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

한 당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볼 때마다 깊은 사랑과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 가서도 그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지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한 많은 목회자가 당회장님의 겸손하신 모습과 그 사랑을 느끼면서 매우 놀라워하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권능의 사역은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귀신을 쫓는 것도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목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큰 감동을 받았지요.

이처럼 당회장님의 사역은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해 보이십니다. 저도 이 권능의 사역과 성결의 복음이 러시아의 많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25~26도로 맞춰지니 놀랍습니다!”

파키스탄 / 제임스 왓트 목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수련회 가기 전 주일 예배시, 기온이 25도 또는 26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로써 수련회는 기간 내내 시원한 날씨 속에 진행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회장님이 계심으로 인한 축복이었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공간 안에 저 또한 함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모습에 참으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기적의 현장을 보니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벨로루시 / 빅토르 비자 목사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각색 질병을 치료받으며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등 기적의 역사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참으로 감동스러웠습니다. 특히 시력이 좋아져 잘 보게 되고, 약한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성결과 죄, 권능에 대한 말씀은 현 시대에 너무 필요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하고 이런 기적을 보게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당회장님과 성도님들의 지극한 사랑과 섬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록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스리랑카 / 가나라자 프린스 목사



올해 처음으로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이곳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은혜로웠던 것은 이재록 목사님께서 진실과 사실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고 사실만을 말할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진실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이기에 만민의 성도님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치 리모컨으로 조절하듯이 기온이 조절되는 놀라운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천국과 같은 이곳에서 재창조의 권능, 기사와 표적을 목도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하는 모습에 은혜받았습니다”

이스라엘 / 실로미 아브라모브 목사



모든 일정을 만민의 가족들과 함께하며 깊은 영적인 기도와 예배, 거룩한 행복함 속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대단했고, 헌신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목사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지 정맥류 치료를 위해 기도받았는데 죽어 있던 양다리의 피부 아래 정맥이 살아나 검붉었던 다리색이 변하고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점점 호전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로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영천만민교회 경기도 영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2층)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람빌딩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